	한국사	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5 조선-3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조선 전기 : 사대 교린

♥ 사대(事大)

▶with : ()

- 건국 초기에는 요동정벌 등으로 명과의 마찰이 있었음
- 태종 즉위 이후 [조공 책봉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대외교]
- 명과 친선관계 유지
-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경제, 문화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방법

♥교린(交隣)

▶with : ()

▷강경책

- 4군 6진 개척 (세종) / 압록강, 두만강 지역 영토확장

▷회유책

- 귀순 장려
- 국경지대에 무역소 설치

▶with : ()

▷강경책


- 쓰시마섬 정벌 (세종)

▷회유책

- 삼포(부산포, 제포, 염포) 개방 - 제한적 교역 허용

+ 조선은 류큐(오키나와), 시암(타이), 자와(인도네시아) 등 여러 나라와도 교류



	한국사	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5 조선-3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왜란 (1592-1598)

-16세기, 여진과 왜인이 국경에서 소란
→ 국방문제를 전담하는 비변사 설치
but, 군역의 문란 - 국방력 약화

일본 내,

[도요토미 히데요시]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

도요토미 히데요시는,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, 대륙 침략의 야욕
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침략함 (명분 : 정명가도(征明假道))

cf. 오다 노부나가

전반기)

- 조선은 왜군을 막아내지 못함. *in 충주, 신립, 탄금대 전투 패배
- 선조의 도망???!!!! / 경복궁 불타
- 20일만에 수도 한성을 빼앗김
- 이순신, 수군이 제해권 장악 (한산도대첩)
→왜군의 수륙 병진작전을 좌절시킴
-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활약 (곽제우)
- 명군(이여송) - 평양성 탈환
- 명-왜 사이의 휴전회담 but, 결렬

후반기)

- 휴전회담 결렬 - 일본의 재침입 (정유재란, 1597)
- 명량해전
- 전세가 일본에 불리,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- 왜군은 철수
- 노량해전

[결과]

- 동아시아에 큰 영향!
- 중국) 명 쇠퇴, 청 세력확장
- 조선) 국토 황폐화, 수많은 사람 희생
- 일본) 도요토미 히데요시 -> 도쿠가와 이에야스 [에도막부 성립]